# WEEKLY IBK 경제브리프



(707호) 2020-03-26

# 팬데믹(pandemic)\*의 역사 및 시사점

\* 그리스어 pan(모두)+demic(사람)에서 유래한 용어, WHO의 전염병 최고 위험단계에서 선언

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, 지난 수천년간 인류를 괴롭혀왔던 전염병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.

#### □ (BC1600년) 천연두,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염병

- **고대 이집트 미라의 얼굴에서 천연두 흔적** 발견 (BC1600년경~)
- 아즈텍·잉카제국의 멸망도 유럽에서 유입된 천연두와 관련 (AD1500년경)
- 韓에서는 마마(媽媽)로 불렀으며, 삼국시대\*에
   이미 전파된 것으로 추정
  - \* 신라의 처용가에 나오는 역신(疫神)이 천연두와 관련



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 에서도 천연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(BC 1145년 사망)

- 수천년간 인류를 괴롭힌 천연두는 백신개발에 따라 1977년 소말리아의 23세 청년을 끝으로 소멸, WHO는 1980년 5월 천연두의 종말 선언
- → 천연두는 인류최초의 전염병이자, 인류가 최초로 정복한 전염병

## □ (BC400년) 「펠로폰네소스 전쟁사」\*, 전염병에 대한 최초의 역사기록

- \* 투키디데스(BC465~400년) 저(著), 집필 중 저자가 사망함에 따라 미완성 상태로 종결
-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침공에 농성전(籠城戦)으로 대항 中 성안에 창궐한 괴질\*(怪疾)로 병력 1月이 사망 \* 장티푸스설(説)이 유력, 흑시병·천연두·홍역설(説)도 존재
- 아테네의 지도자였던 **페리클레스도 이 병으로 사망**, 전염병으로 지도자와 병력을 잃고 쇠락한 아테네는 결국 **스파르타에 멸망** (BC404년)



**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페리클레스**(BC495 ~ 429년)

#### □ (AD208년) 삼국지(三國志) 적벽대전, 코로나19의 조상

- 제갈공명과 주유의 계략으로 유비·손권연합군이 조조를 격퇴하였다는 **소설과는 달리**, 실제 역사에서 조조가 패배한 원인은 전염병
- 그 **적벽이 바로 우한(武漢) 지역**, 「딘 쿤츠」의 소설\*에도 「우한400」이라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등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우연이 아닐지 모름 \* The Eves of Darkness(1981년, 미국)

'조조는 적벽에 도착하여 유비와 싸웠지만 형세가 불리했다. 이때 역병이 유행하여 관리와 병사를 많이 잃었으므로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'

- 정사(正史) 삼국지 위서 무제기(=조조) -
- '그 때 조조의 병사들은 이미 질병에 걸렸으므로 처음 한 차례 싸움에서 조조군이 패하여 장강 북쪽에 주둔했다'
  - 정사(正史) 삼국지 오서 주유전 -

#### □ (AD1348년) 흑사병(페스트), 인류역사상 최악의 전염병

- (발원) 중앙아시아 발원 후 유럽·중동·동아시아까지 확산 추정
  - \* 몽고의 유럽원정時 흑사병 감염사체를 투석기로 쏘는 생물학전을 펼쳤다고도 전해짐
- (**피해**) 유럽인구의 1/3인 2,5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\*되나
  - \* 후대 연구자들이 흑사병 전·후 인구변화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에 근거
  - 중국에서도 2,500만명 이상 사망하여 원(元)나라가 98년 만에 멸망하는 계기가 되는 등 全세계적으로 7,500만명 이상 사망 추정
- (한국상황) 고려 29대 충목왕도 흑사병으로 사망 (1348년)

#### < 고대 및 중세의 전염병 지도 >



#### □ (1918년) 스페인이 억울해 할 법도 한 스페인 독감

- (발원) 美시카고, 프랑스 내 미군기지 등으로 추정
  - 1차 대전으로 주요국 언론이 통제당한 가운데, 未참전국인 **스페인이** 자유롭게 심충보도하면서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
- (피해) 전 세계적으로 5억명 감염, 사망자 최대 5천만명 추정
- (한국상황) 당시 한반도는 일제 치하, 조선총독부의 기록에 따르면 「무오년(戊午年) 독감」으로 740만명 감염, 14만명 사망

#### □ (2020년) 코로나19, WHO의 3번째 팬데믹 선언

○ **(WHO의 팬데믹 선언)** 홍콩독감('68년)→신종플루('09년)→코로나19(현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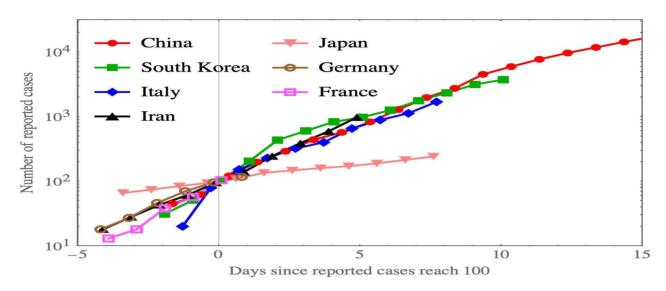
구분		홍콩 독감	신종플루	코로나19 <sup>*</sup>
발원		홍콩	미국 또는 멕시코	중국 우한
세계	감염	1억명 이상	7억명 이상	445,155명
	사망	100만명 이상	15만명 이상	20,484명
한국	감염	없음	약70만명	9,241명
	사망	없음	263명	131명

<sup>\*</sup> 코로나19의 감염 및 사망자 수는 '20.3.26. 09시 질병관리본부 집계 기준

#### < 팬데믹 발원지 및 사망자 >



#### □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「루머의 공식」



\* 출처 : Alessandro Strumia(이탈리아 피사대학 교수·물리학자)

R(Rumor, 루머의 강도) = I(Importance, 중요성) × <u>A(Ambiguity, 불확실성)</u>

→ 정부가 <sup>①</sup>공식입장을 발표, <sup>②</sup>정보제공時 충분히 설명, <sup>③</sup>세부내용 미공개時

그 이유를 설명해야 불확실성(A) 감소하여 국민들이 안심 (루머 대응 3대 원칙)

#### □ 대한민국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하다

- '韓, 코로나19 방역의 롤 모델' : 美의회 및 주요외신 (BBC, CNN 등)
- 트럼프, '韓 의료장비 지원해 달라', '韓 코로나19 진단 키트, 매우 인상적'
- 「코로나 의리」 지킨 UAE에 국산 진단키트 첫 수출 (한국경제, 3/17)
  - 26개국이 지원을 요청한 中, 코로나19 확산세에도 한국에 대한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UAE를 1순위로 낙점하며「코로나 외교」과시
- SK와이번스 제이미 로맥, '한국이 더 안전하다' (캐나다 매체 인터뷰 中)

### □ 전화위복(轉禍爲福),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'혁신 KOREA' 시대가 열릴 것

- (고난극복의 Key는 국민) 의료진·자원봉사·공무원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헌신, 사재기 등 동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묵묵히 실천하는 국민
- **(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2위\*)** 「드라이브 스루 검사」는 또 다른 혁신의 사례로 팬데믹 극복의 역사에 기록될 것 \* 1위 독일, 3위 싱가포르

(작성자 : 경영연구팀 차장 류동석 dsunited@ibk.co.kr / ☎02-729-6588)